

기암 정홍명의 두보 시 수용과 변주 양상

박종훈*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생애와 시작품의 특징
3. 두보 시의 수용과 변주 양상
4. 나가는 말

| 국문초록 |

정홍명은 아버지 정철로 인해 순탄치 못한 벼슬살이를 했고 많은 시간을 고향인 창평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했다. 그러한 불우의 삶이 그의 시문에 그대로 녹아 있는데, 이를 장자적 사유나 두보 시의 적극적이 수용을 통해 해소하기도 했다.

그간 정홍명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장자적 사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홍명 《기암집》의 서문이나 당대 문인들의 언급을 통해 보면, 장자만큼이나 두보의 영향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홍명의 두보 시 수용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두보의 작품과 유사한 시어나 시구 혹은 의경이 표출된 정홍명의 작품을 통해 그 수용과 변주 양상을 검토했다. 정홍명은 수많은 작품에서 부분부분 두보 시의 시어 및 의경을 선택적으로 적극 활용했다. 단순한 수용뿐만 아니라, 두보 시와는 결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시작(詩作)이 이루어져 변주 양상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두보 시의 자기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홍명은 두보의 한 작품의 의경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했지만 변주하여 자기화하기도 했다. 두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으로 작품을 지으면서, 일정 부분 두보의 시어나 의경을 수용했지만, 자신만의 처지나 목소리도 확실하게 담았다. 이 부분은 두보 시를 수용했던 다른 시인들과 변별되는 정홍명의 특징적 일면이라고 하겠다.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조교수

핵심어 : 鄭弘溟, 畸庵集, 杜甫, 수옹과 번주, 戲效老杜六絕句, 莊子.

1. 들어가는 말

기암(畸庵)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은 정철(鄭澈)의 넷째 아들로, 정철로 인해 순탄치 못한 벼슬살이를 하면서 고향인 창평에 은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삶의 고뇌를 수많은 시문에 담아내었다. 그러한 정홍명의 심사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낳았다.¹⁾

선행 연구 중 운문을 중심으로 한 논문은 불우한 정홍명의 삶에 집중하여, 어떠한 사유를 통해 울분을 풀어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장자의 사상이 발현된 작품을 중심으로, 현실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지식인의 고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장자적 사유와 그 사유의 작품화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조명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자적 사유만큼 정홍명의 시문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두보 시의 수용 양상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정홍명의 문집인 《기암집》의 서문에서도 장자만큼이나 두보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졌다.

조선 문인들의 두보 시 수용 양상에 대한 선행 연구 역시 적지 않다.²⁾ 이들

1) 정홍명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최경환의 <鄭弘溟의 <田家四時詞>詩와 連作詩의 構成原理>(《牛岩斯黎》 권8,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김은정의 <鄭弘溟의 생애와 시문학 세계>(《국문학연구》 10권, 국문학회, 2003.); 박수천의 <기암 정홍명의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 9권, 한국한시학회, 2005.); 정치용의 <畸庵 鄭弘溟의 漢詩 研究>(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5.); 권혁명의 <정홍명의 <기옹만필>에 대하여>(《한성어문학》 35권, 한성어문학회, 2016.); 김광년의 <畸庵 鄭弘溟의 賦와 散文에 대한 一考察>(《한문학논집》 43권, 근역한문학회, 2016.); 권혁명의 <畸庵 鄭弘溟의 漢詩 研究 - 黨綱의 삶과 詩世界 ->(《인문학연구》 6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엄태식의 <畸庵 鄭弘溟 산문 연구>(《인문학연구》 6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박중훈의 <鄭弘溟의 <畸庵集> 一覽>(《인문학연구》 6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2)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구본현의 <李安訥의 韓愈·杜甫 詩 학습의 실상과 의미>(《한

선행 연구는 두보와 시구가 동일하거나 시구를 재배열한 경우, 혹은 압축과 변형 등의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두보의 시문이 적지 않고 그 많은 작품에 대한 접근과 심도 있는 이해가 쉽지 않기에 시작부터 일정부분 한계를 갖는 접근 방식이다. 시어의 사용뿐만 아니라, 기저에 깔린 정조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두보 시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보 시의 수용 양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 역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자 역시 두보의 삶이나 그 삶을 기반으로 한 시문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 두보 시의 수용 양상을 밝히는 출발점에서부터 일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시어나 구절 혹은 제목 등의 단편적인 근거로 수용 양상을 논한 것은 연구자의 과묵한 탓임을 미리 밝힌다.³⁾

2. 생애와 시작품의 특징

1) 정홍명의 생애

정홍명의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자용(子容), 호는 기암(畸庵)·삼치(三癡),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582년(선조 15) 3월 7일, 부친 정철과 모친 문화 유씨(文化柳氏) 유강항(柳強項)의 딸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593년(선조

문고전연구》 14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김현주의 <澤堂의 杜甫 詩 受容樣相>(《한문학논집》 25권, 근역한문학회, 2007.); 이정화의 <退溪 李滉 시에 나타난 杜詩 수용 양상>(《한국사상과문화》 55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김근태의 <稔谷 元天錫의 杜詩수용 양상에 대한 談論>(《한문고전연구》 25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정재철의 <조선중기 도학가의 두보 시 수용 양상 -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 56권, 한국한문학회, 2014.); 한해철의 <石洲 權輿의 杜詩 受容 樣相>(《한문교육연구》 4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김봉남의 <茶山 丁若鏞 詩에 나타난 杜甫 詩 수용양상(2)>(《동방한문학》 80권, 동방한문학회, 2019.).

3) 본고에서는 두보의 시작품에 접근하기 위해 이관성 역(譯)의 《두시경전(杜詩鏡銓)》 권 1·2·3·4(도서출판 문진)와 사고전서전자판(四庫全書電子版)을 활용했다.

26) 12세 되던, 12월 부친 정철의 상(喪)을 당했고 1596년(선조 29) 15세 되던 해 모친상을 당했다. 송익필(宋翼弼)과 김장생(金長生)에게 수학했다. 1609년(광해군 1) 김우성(金佑成)이 부친 송강을 무휼하자 중형(仲兄) 정종명(鄭宗溟)과 함께 소장을 올렸다. 이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호남으로 거처를 옮겼고 1616년(광해군 8) 문과에 합격했으나 삭방(削榜)당하여, 고향 창평으로 돌아와 학문에 전념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벼슬살이를 시작했고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때에 인조(仁祖)를 공주(公州)까지 호종했으며, 정철의 신원을 상소하여 정철의 관직이 회복되었다. 1627년(인조 5) 46세 되던 해에 독서당에 뽑혔고 호란(胡亂)이 일어나자 세자를 모시고 남하(南下)했다. 1633년(인조 11) 김제 군수(金堤郡守)가 되었으며 임기를 마친 뒤 고향 창평으로 돌아왔다. 1650년(효종 1) 10월 2일, 향년 69세로 졸했다.⁴⁾

정홍명의 생애에 대해, 《기암집》 서문에서 신익성(申翊聖)은 “자용은 일찍부터 집안의 재난을 만나 조용히 물러나 폐인으로 자처했으나 여러 해를 옛 전적에 전심하고 스승의 문하에서 질의(質疑)하여 견식이 정미하고 넓었다. 고금의 서적을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했고⁵⁾ 이경석(李景奭)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호해(湖海)의 사이에서 불우하게 떠돈 것이 거의 반평생이었다.”라고 한 바 있다.⁶⁾

이러한 평가는 우선 불우했던 정홍명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홍명의 불우는 부친 정철과 관련된 당고(黨錮)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⁷⁾ 시문에서 장자와 도잠의 <귀거래사>의 논의가 반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우한 삶을 장자적 사유나 귀거래를 통해 토로하면서 위안한 셈이다.⁸⁾

4) 정홍명의 상세한 이력에 대해서는 박종훈의 위 논문, pp.77~79 참조.

5) 신익성, 《기암집》 서 “子容夙遭家難, 退然自廢, 專心墳素, 積有年紀, 質疑師門, 識解精博. 於古今書, 無所不涉.”

6) 이경석, 《기암집》 서 “爲人所齟齬, 踳踖浮遊於湖海之間者, 殆半生矣.”

7) 권혁명의 위 논문(2021)에서는 정홍명의 당고(黨錮)의 삶과 그와 관련된 시세계를 조명한 바 있다.

2) 정홍명 시문의 특징

정홍명 시문에 대한 당대 문인들의 평가를 통해 그 특징을 유추해 보겠다.

고금의 서적을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특히 《이소》·《문선》·한유·두보를 좋아해, 꼭 짓어들어 익숙하게 읽었으며 충분히 섭취하여 펼쳐내었다.⁹⁾

소체(騷體)와 선체(選體)로 쓴 부(賦)와 뇌문(誄文)은 《이소경》과 《문선》 수준이었고 당시와 송시를 넘나든 그의 시는 당시나 송시만큼 훌륭했다.¹⁰⁾

그가 지은 부(賦)와 뇌(誄)는 《이소》와 《문선》 같았고 그가 지은 문장은 양한(兩漢)에 근본하고 한유를 출입한 것이 많았다. 시도(詩道)는 깊고 옹호했으며 간간이 호방한 말로 표현한 것은 오롯이 한 사람의 대가였다.¹¹⁾

백가(百家)의 책을 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육경의 말이 벅속에 많이 쌓여 있었다. 문장은 《장자》와 한유를 주로 삼고 시는 두보를 주로 삼아 풍부하면서도 웅장하고 고아하면서도 굳세었다.¹²⁾

이러한 평가를 정리하면, 우선 《이소》·《문선》·《장자》·한유·두보가 그 중심에 있다. 정홍명의 작품 중에 <招魂>이나 <續招>(권9) 및 <夢寵>(권9)는 《이소》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며, 《이소》의 구절을 수용하여 시화(詩化)한 경우도 전체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산견된다. 또한 <忘齋記>(권10)와 <復庵記>·<晚省齋記>·<聽籟軒記>·<大覺知大夢說>(권11) 등의 작품은 장자적 사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유를 담아낸 것이다. 물론 한

8) 《기암집》의 판본과 시문의 현황에 대해서는 박종훈의 위 논문, pp.83~89 참조.

9) 신익성, 《기암집》 서 “於古今書, 無所不涉, 醜者騷選韓杜, 沈潛沃沃, 翁取敷施.”

10) 신익성, <晦庵病稿跋>(《樂全堂集》 권8) “其賦誄之爲騷選者如騷選, 詩道之出入唐宋者如唐宋.”

11) 신익성, <送鄭嗣學出守金堤郡序>(《樂全堂集》 권5) “其爲賦誄如騷選, 爲文章, 根於兩京而出入昌黎氏者爲多. 詩道沈雄, 間發豪語, 居然一大家也.”

12) 이경석, 《기암집》 서 “百氏之書, 無不過目, 六經之語, 多畜於腹. 文主乎莊韓, 詩主乎老杜, 博而雄雅而健.”

시 작품에서도 장자의 활용은 돋보이는 특징 중 하나이다. 당대 문인들 역시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선행 연구도 장자적 사유와 이를 작품화한 것에 집중되어 있어,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선명해졌으며, 《이소》와 《장자》에 대한 경도가 불우했던 삶과 이를 극복하려한 심리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두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된 연구 성과가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보 시의 수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두보 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하기에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두보는 시성(詩聖)으로 불릴 만한 한시사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다. 그러한 두보를 가져와 정홍명을 평가했다는 것은 정홍명이 두보 시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정홍명의 두보에 대한 경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정공(鄭公)은 호련(瑚璉)의 그릇이니	鄭公瑚璉器
곤산(崑山)에서 봉황이 난 격이네.	崑山生鳳凰
옛날 어렸을 때부터	昔在童子日
한묵의 마당에서 노닐었네.	出遊翰墨場
단술 차린 곳에서 옷자락을 끌었고	曳裾置醴地
사귄 사람들은 모두 노성한 이들이었네.	結交皆老蒼
문장을 날마다 자부하여	文章日自負
조류(曹劉)의 담장을 눈 아래로 보았네.	目短曹劉牆

…하략(下略)…

《기암집》 부록에 실린 김육(金堉)이 지은 정홍명의 만사로, 5언 32구의 작품이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차치하고 시구만을 보면, 모두 두보의 시구를 그대로 차용해 전체 작품을 구성한 독특한 일면이 있다. 1구는 두보 “鄭公瑚璉器, 華岳金天晶.”, 2구는 “渥水出騏驎, 崑山生鳳凰.”, 3구는 “昔在童子日, 已聞

老成名.”, 4구는 “往者十四五, 出遊翰墨場.”, 5구는 “曳裾置體地, 奏賦入明光.”, 6구는 “脫落小時輩, 結交皆老蒼.”, 7구는 “文章日自負, 掾吏亦累踐.”, 8구는 “氣廟屈賈壘, 目短曹劉牆.”이라는 구절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김육은 두보의 17개 작품에 보이는 구절을 그대로 활용하여 총 32구의 만사를 지은 셈인데,¹³⁾ 김육은 정홍명이 두보에 경도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홍명의 만사를 두보의 시구로만 엮은 것이다. 이를 통해 두보에 대한 정홍명의 경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두보에 대한 경도는 앞서 언급한 《이소》에 대한 평가로도 연결된다. 이익(李瀾)은 《성호사설》에서 시의 원류와 관련해 《이소》와 두보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이익은 《시경》과 《이소》를 모두 운문의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두보 역시 《이소》를 본받아 말을 더욱 오묘하게 엮었다고 칭송한 바 있다.¹⁴⁾ 결국 《이소》의 영향 하에서 두보 시의 의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당대 문인들이 정홍명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이소》와 두보를 함께 거론한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보자면, 정홍명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장자》 그리고 《이소》와 두보 두 축에 대한 접근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장자》와 관련해서는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홍명 작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보 시의 수용 양상에 접근해 보겠다.

13) 김육이 32구의 만사를 지으면서 활용한 두보의 작품은 <遺興五首>, <故祕書少監武功蘇公源明>, <故右僕射相國曲江張公九齡>, <哭王彭州掄>, <哭台州鄭司戶蘇少監>, <寄李白>, <寄彭州高使君適虢州岑長史參>, <夢李白>, <奉贈王中允維>, <奉贈太常張卿垆二十韻>, <祠南夕望>, <湘江宴餞表二端公赴道州>, <送大理封主簿五郎親事不合卻赴通州>, <入衡州>, <壯遊>, <贈左僕射鄭國公嚴公武>, <春日憶李白>이다.

14) 이와 관련해서는 박중훈의 <星湖僊說에 보이는 원류비평 양상(I)>(《온지논총》 51권, 온지학회, 2017.)과 <星湖僊說에 보이는 원류비평 양상(II)>(《온지논총》 57권, 온지학회, 2018.) 참조.

3. 두보 시의 수용과 변주 양상

1) 시구와 의경의 활용

이 장에서는 두보와 정홍명의 각 작품에 보이는 시어나 시구 혹은 의경이 유사한 구절만을 대상으로, 수용과 변주 양상을 살펴보겠다.

두보 <夢李白>의 “지는 달빛이 들보에 가득하니, 아직도 그대 얼굴 비추는 듯.[落月滿屋梁, 猶疑見顏色.]”이라는 구절과 <貧交行>의 “손을 펴면 구름이요 뒤집으면 비인가, 가벼운 세상 사귀 말해 무엇 하리.[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라는 구절은 시인들이 애용하는 대목인데, 정홍명 또한 작품의 곳곳에서 이 구절을 활용한 바 있다.¹⁵⁾ 또한 권5 <次趙參判素翁卷中韻>은 세대의 변화에 무상함을 읊조린 것으로, “뜯 구름 같은 만사가 다 그러려니, 푸른 개가 잠깐사이에 흰옷이 되었구나.[從他萬事浮雲似, 蒼狗須與化白衣.]”라고 갈무리했다. 두보는 <可歎>의 첫 구절에서 “하늘 위 뜯구름이 흰옷과 같더니만, 잠깐 사이 변하여 푸른 개가 되었구나.[天上浮雲如白衣, 斯須改變成蒼狗.]”라 한 바 있다.

탕(湯)의 그물이 오늘 아침 풀렸는데	湯網今朝解
초(楚)나라 죄수는 언제 돌아오려나.	楚囚何日歸
사람이 누군들 아버지와 아들 없으랴	人誰無父子
다행히도 은총과 자비를 입었다네.	自幸荷恩慈
옛집엔 부질없이 불탄 재만 남았고	舊宅空餘燼
그윽한 거처는 가지 하나 뿐이네.	幽棲但一枝
뜯 인생들 모두 구차하게 사니	浮生共鹵莽
쇠한 백발이지만 기꺼이 따르리라.	衰白喜追隨 ¹⁶⁾

15) 권4 <哭洪同知澤芳>의 “樑月空勞夢”이나 권5 <兒輩編輯親舊簡牘成帙, 題卷尾>의 “從他雲雨多翻覆, 閱盡炎涼遞滿除”라는 구절 등이 있다.

16) 권4 <林甥得輿以其父弟贖放事還鄉, 感歎作此>

권4에 실린 생질 임득역(林得輿)가 그 아버지와 동생이 속방(贖放)된 일로 고향에 돌아왔기에 감탄하여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구절구절 두보 작품의 시어를 수용했다. 6구의 ‘幽棲但一枝’는 곤궁한 삶에 대한 묘사인데, 두보 역시 <偶題>에서 “살림은 좋은 계책에 부끄러우니, 한 가지 빌려 잠시 깃드네.[經濟慚長策, 飛棲假一枝.]”라고 했으며, <宿府>에서 “이미 외로움 견딘 지 십여 년인데, 한 가지 등지에 억지로 옮겨와 깃들이네.[已忍伶俜十年事, 強移棲息一枝安.]”라고 한 바 있다. 작품에 보이는 심적 처지가 두보의 작품에 보이는 처지와 대동소이하기에, 자연스럽게 두보의 시어를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7구의 ‘浮生共鹵莽’ 역시 두보의 <空囊>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모두 구차하게 사니, 나의 길도 험난하구나.[世人共鹵莽, 吾道屬艱難.]”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두보는 <空囊>에서 곤궁한 삶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바 있다. 정홍명 역시 그러한 의경을 그대로 이어, 기꺼이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정홍명은 <自娛堂八詠, 爲趙季中作.>에서 “어찌하면 시상이 도연명 사령운 같은 길손 얻어, 사립문 열린 곳에서 밤을 보낼 수 있을까.[焉得思如陶謝客, 華門開處夜尙過.]”라고 했는데, 두보 <江上值水如海勢, 聊短述.>의 “어찌하면 도연명 사령운 같은 사람 얻어, 그들로 하여금 시를 지으며 함께 노닐까.[焉得思如陶謝手, 令渠述作與同遊.]”라는 구절과 유사하다. 시어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의경 또한 비슷하다. 권3 <次鶴谷韻>에서 “노소년(老少間)에 동조(同調)를 앞세움이 도리어 부끄럽고, 현우간(賢愚間)에 무리가 각기 다르다 말하지 말라.[還慙老少先同調, 休道賢愚各異倫.]”라고 한 바 있다. 이 구절은 두보의 <徒步歸行>과 <寄薛三郎中璩>를 의식한 상태에서의 언급으로 보인다.¹⁷⁾ <徒步歸行>은 이사업(李嗣業)을 칭송한 것으로, 정홍명의 작품 역시 홍서봉(洪瑞鳳)을 칭송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두보의 <寄薛三郎中璩> 역시 설거를 칭송하는

17) 두보는 <徒步歸行>에서 “친우 사귀에는 나이 따질 필요 없으며, 어찌 직급이 같아야만 교류하리까.[人生交契無老少, 論交何必先同調.]”라고 했고 <寄薛三郎中璩>에서 “인생은 잘난 이, 못난 이 없이, 먼지처럼 세상을 떠돈다네.[人生無賢愚, 飄飄若埃塵.]”라고 했다.

내용으로, 정홍명의 작품과 동케이다. 결국 정홍명은 두보 작품의 두 구절을 압축하여, 상대에 대한 칭송을 배가시킨 셈이다.

권5 <土元宅, 次觀海兄韻>에서 “흥을 타고 왕래하며 두 노인 되었네.[乘興往來成二老]”라고 하면서 관해(觀海)와의 우호를 담아내면서 작품을 마무리했다. 이 구절은 두보가 <贈贊上人>에서 “그대와 두 늙은이 되어, 왕래하면 또한 풍류가 되겠네.[與子成二老, 來往亦風流.]”라고 하면서 마무리한 것과 시어나 시상 전개 과정이 유사하다. 동일한 시어의 사용을 통해 유사한 의경을 담아내면서도 두보의 5언 2구를 7언 1구로 압축 활용한 것이다.

지친 나그네가 장차 돌아갈 날에	倦客將歸日
다시 이 당에 머물며 즐긴다네.	留歡復此堂
평평한 단은 자리 펼칠 만하고	壇不容席展
예스런 술은 사람만큼 자랐네.	松古學人長
먼 산은 맑은 조망을 제공하고	遠岫供晴眺
미풍은 저녁의 서늘함 보내오네.	輕風進夕涼
지나가며 물색을 남겨 놓으니	經過分物色
아름다운 곳 잊기 어려워서네.	佳處故難忘

권3 <題鐵山山亭> 두 번째 수로, 산정의 풍광을 묘사하면서 절승처이기에 작품을 남겨둔다고 했다. 4구의 ‘松古學人長’은 두보가 초당(草堂)의 옛 집을 회상하며 지은 <四松>에 보이는 “네그루 소나무 처음 옮겨왔을 때는, 아마도 삼척이 조금 넘었지. 떠난 뒤에 삼년이 지났는데, 나란히 서 보니 사람만큼 자랐네.[四松初移時, 大抵三尺強. 別來忽三歲, 離立如人長.]”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두보는 <巖麓山道林二寺行> 마지막 구절에서 “송공(宋公)이 쫓겨난 뒤 벽에다 시를 썼는데, 물색을 남겨놓아 늙은 나를 기다렸도다.[宋公放逐曾題壁, 物色分留待老夫.]”라고 한 바 있는데, 이 구절은 정홍명 작품 7구의 ‘經過分物色’과 유사하다. 의경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슷한 의경을 묘사한 두보 작품의 구절구절의 시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권1 <八音歌述懷>에서 “죽엽과는 이미 연분이 없고, 닫힌 사립문에 벌레만 우네.[竹葉已無分, 柴門閉蟲響.]”라고 한 바 있다. 이 구절은 두보의 <九日五首> 첫 번째 수에 보이는 “죽엽은 나에게 이미 연분이 없으니, 국화는 이제부터 굳이 필 것 없어라.[竹葉於人既無分, 菊花從此不須開.]”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정홍명은 두보의 7언을 5언으로 활용하면서도 정조만은 그대로 이었다. 또한 권5 <誦謝錦城使君, 用前韻> 4구에서 “기심(機心) 잊은 녹피옹(鹿皮翁)을 배우고 싶네.[冥機欲學鹿皮翁.]”라고 한 바 있다. 이 구절은 두보 <遣興三首> 세 번째 수의 “다만 위로 삼으라, 녹피옹이 세상 잊고 풀꽃 보며 지낸 것으로.[但詎鹿皮翁, 忘機對芳草.]”라는 구절과 관련이 있다. 정홍명은 ‘녹피옹’을 언급하면서 ‘명기(冥機)’라 했는데, 이는 두보 작품의 ‘망기(忘機)’와 동일한 표현이다. 이어 6구에서는 “늙그막 생애는 정처 없이 떠도는구나.[到老生涯逐轉蓬.]”라고 했는데, 이 역시 두보의 <投贈哥舒開府翰>에 보이는 “젊은 날 기둥에 다짐 쓰기도 했지만, 한평생 쑥처럼 떠돌아 다녔네.[壯節初題柱, 生涯獨轉蓬.]”라는 구절을 의식한 상태에서의 언급으로 보인다. 두 작품은 의경도 유사한데, 두보의 5언에 ‘到老’ 2글자를 보태어 7언으로 활용했다.

권2 <再次韜翁再疊屬示韻>에서 “남아로 태어나 명성 못 이루고 머리 희어 지니, 이 말은 일찍이 두릉 노인이 상심했던 것이네.[男兒生不成名頭已皓, 此語曾傷杜陵老.]”라고 한 바 있다. 두보가 상심했던 것이 바로 1구인데, 이 구절은 두보의 <乾元中, 寓居同谷縣, 作歌七首.> 일곱 번째 수 첫 구절인 “男兒生不成名身已老”라는 대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두보의 시구를 직접 인용했고 낙척한 심사를 묘사한 전체적인 의경도 유사하다. 권5 <素翁和詩, 愈出愈新, 不勝畝艷, 敢竭鄙思, 復疊前韻, 冀斤教.> 네 번째 수에서 “훈업 염려하던 소롱의 거울을 괜히 쳐다보네.[勳業空看少陵鏡.]”라고 하면서 의기를 떨치지 못한 채 늙어버린 상황에 대한 탄식을 담아냈다. 직접 두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두보의 <江上>에 보이는 “공적 없어 자주 거울 보니 부끄럽고, 진퇴 생각에 홀로 누대에 기대네.[勳業頻看鏡, 行藏獨倚樓.]”라는 구절과 연관된다. 두보 역시 훈업을 세우지 못하고 늙어 감을 안타까워하면서 행장을 정하지 못한

채 누대에 기댄다고 한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두보를 직접 언급하면서 두보 작품의 의경을 그대로 이었다.

두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시어의 직간접적인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작품의 제목이나 시어의 측면에서 두보의 의경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일련의 작품들도 산견된다.

무슨 일을 호소하려 하는가	所訴知何事
밤부터 새벽까지 고달피 우는구나.	辛勤夜徹明
마음 은근하나 아직 원망 품었고	心微猶抱怨
피 다 쏟고서도 다시 우는구나.	血盡更聞聲
골짜기 물 공연히 오염하게 하고	空使澗泉咽
바람과 이슬은 더없이 맑구나.	不禁風露清
나도 충의의 울분이 넘쳐나서	吾人足忠憤
눈물 떨구며 짧은 시 이루었네.	落淚小詩成

권4에 실린 <夜坐聞鶉>으로, 두견의 울음소리를 듣고 충분(忠憤)을 환기하며 지은 작품이다. 두견의 별칭은 불여귀(不如歸)이다. 촉(蜀) 망제(望帝)가 임금 자리를 내주고 도망칠 때에 두견이가 울었는데, 그 뒤로 촉 땅 사람들이 두견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망제를 생각한 나머지 비감에 사로잡혀 “어이해 돌아가지 않느냐.[不如歸去]”고 울어대는 것처럼 들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두견과 관련된 수많은 한시 작품의 경향은 위에 보이는 정홍명의 작품과 대동소이하다. 두보 역시 두견과 관련해 <杜鵑行>과 <杜鵑> 등의 작품을 지은 바 있다. 정홍명 작품의 1구는 ‘所訴知何事’인데, 두보의 <杜鵑行>에 보이는 “무슨 일을 호소하기에 노상 애잔한가.[所訴何事常區區]”라는 표현을 적절히 수용해, 작품의 포문을 연 것이다. 마지막 구의 ‘落淚小詩成’은 두보의 <杜鵑>에 보이는 “샘솟는 우물처럼 눈물 흘리네.[淚下如迸泉]”라는 것과는 맥락이 닿는데, 두 작품 모두 눈물로 마무리되어 있다. ‘夜徹明’, ‘血盡’, ‘咽’, ‘憤’ 등의 시어 역시 두보의 시어를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두보는 두 작품

에서 충분(忠憤)에 대한 격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었는데,¹⁸⁾ 정홍명의 작품 역시 충분(忠憤)이 토로되어 있다. 작품을 여단을 때에 유사한 제목의 두보 작품을 활용했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시어와 의경을 십분 활용했다.

그대는 보지 못했다, 개천(開天) 이래 문장 성하여	君不見開天以來盛文章
이백과 두보가 용과 봉처럼 우뚝 솟아 난 것을.	李杜崛起龍鳳翔
무너진 풍속을 떨치려 《이소》와 《시경》 이었고	欲振頹風繼騷雅
혼돈 상태를 다시 개혁하여 태고 시대 열었네.	再闢草昧開鴻荒
제자백가를 망라하여 끝까지 탐색하였고	網羅百家窮搜索
온갖 것을 읊조렸으니 누가 대적하라.	吟弄萬類誰爭敵

…하략(下略)…

권2에 실린 7언 20구의 <醉時歌>란 작품으로, 두보와 이백의 시풍에 대해 양찬(仰鑽)했다. 시풍이 혼돈한 시기에 《이소》와 《시경》을 이었고 제자백가를 섭렵했으니, 이들에게 대적할 수 없다고 자평하면서 자신 또한 이를 따르고자 했다. 정홍명은 애주가로 정평 나 있었기에, 술에 열큰해져 자신의 평소 두보에 대한 심취를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두보 역시 <醉時歌>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작품을 엮은 바 있다. 두보의 작품은 장단 28구로, 당대 시인인 정건(鄭虔)에게 주면서 그의 재주를 굴원(屈原)과 송옥(宋玉), 사마상여(司馬相如), 양웅(揚雄)에 견주었고 불우한 삶에 대해 아파하면서 만나 한 잔 술 더하기를 염원했다. 두보는 장건을 통해 자신의 모습까지도 효과적으로 담아내며 위로한 것이다. 일단 정홍명이 <취시가>를 지

18) 두보의 <杜鵬>에 대한 시평(詩評)에서는 “이 작품은 당대 신하의 직분을 다하지 않은 자들을 비판한 것으로, 즉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 옛날에는 단자장(段子璋), 서지도(徐知道), 최간(崔旰) 등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 자세히 시어를 살펴보니 당시 번진 세력에 느낀 바가 있어 지은 것 같다.”라고 했고(이관성 역, 《杜詩鏡詮》 권3, p.511 참조) <杜鵬行>에 대한 시평에서는 “이 당시 현종(玄宗)은 이보국(李輔國)에게 겁박을 당해 서내(西內)에 가뒀져 있었고 숙종(肅宗)은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 두보는 <두견행>을 지어 그런 상황을 마음 아파한 것이다.”라고 했다.(이관성 역, 《杜詩鏡詮》 권2, p.334 참조) 두보의 작품 모두 충분(忠憤)이 발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으면서 두보에 대해 언급한 것부터가 두보의 작품을 일정 정도 의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두보는 술에 기대어 장건을 칭송하면서 자신과 동일시했으며, 정홍명 역시 취해 두보에 대해 칭송하면서 두보의 삶에 자신을 의탁했으니, 이 역시 두보의 작품을 염두 해 둔 흐름이다.

정홍명은 자신의 심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동일한 의경을 담고 있는 두보 작품의 시어나 시구를 십분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두보 작품을 의식한 상태에서 유사한 제목의 작품도 창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두보 시의 수용 양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각 시인에 맞게 일정 정도 수행된 작업이다. 그러하기에 이를 두고 정홍명만의 특징적 일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¹⁹⁾

2) 자기화(自己化)의 추구 양상

이 장에서는 시어나 시구 혹은 의경의 단순한 수용과 변주 양상이 아닌, 두보의 한 작품을 전체적으로 의식한 상태에서 지은 정명홍의 작품을 중심으로 자기화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맑은 가을날 쓸쓸히 잎 지는데	落木蕭疏秋日晴
동문은 적막하고 저녁 구름 평평하네.	洞門寥闕暮雲平
몇 떨기 찬 대나무는 언덕에 푸르르고	數叢寒籜綠坡綠
한 줄기 그윽한 샘이 계곡 가에 맑구나.	一道幽泉在澗清
푸른 옷소매엔 아직 사향 기운 남았고	翠袖尙留殘麝氣
푸른 창에는 공연히 매미 소리 잠겼어라.	碧窓空鎖亂蟬聲
고뇌를 하소연하려 해도 알아주는 이 없어	煩冤欲訴無人會
손으로 대나무 꺾어 한갓 마음 붙이네.	手折琅玕徒倚情

권5에 실린 <日暮倚脩竹>이란 작품으로, 쓸쓸한 자신의 상황을 묘사했다. 작품의 제목인 ‘日暮倚脩竹’은 두보의 시구를 그대로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두

19) 물론 필자의 과문으로 인해, 그 양상이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여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

보의 <佳人>이란 작품은 첩에게 사랑을 잃어버린 여인의 한을 노래한 것으로 마지막 구절이 바로 ‘日暮倚脩竹’이다. 두보의 작품은佳人(佳人)에 의탁해 자신의 절조를 지키겠다는 다짐인데, 정홍명은 이와는 무관하게 하소연할 곳 없는 자신의 낙척한 상황과 심사만을 언급하면서 두보와는 결을 달리했다. 내용상의 변주를 피하면서도 ‘泉在礪清’이나 ‘翠袖’ 등 두보 작품의 시어를 활용했다.

두보는 <戲爲六絕句>에서 시인을 비평하고 작시방법 내지 작시태도에 대해 천명한 바 있다.²⁰⁾ 정홍명은 두보의 위 작품을 토대로 <戲效老杜六絕句>(권8)를 지은 바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조선 시인들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졌다. 우선 두보의 작품부터 살펴보겠다.

유신(庾信)의 문장은 늙어서 더욱 무르익어	庾信文章老更成
구름 뚫는 건필(健筆)에 의사(意思)는 종횡무진.	凌雲健筆意縱橫
지금 사람은 전해지는 작품 비웃지만	今人嗤點流傳賦
유신이 후생을 두려워나 하겠는가.	不覺前賢畏後生

두보의 <戲爲六絕句>의 첫 번째 수이다. 노성(老成)한 유신의 문장에 대한 평가로 작품을 열었다. 두보의 다른 작품에도 유신을 의식한 상태에서의 언급이 산견되어 유신의 창작 기법을 일정 부분 따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2구는 유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哀江南賦>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

한평생 해내에서 살아온 영가(永嘉)의 늙은이	平生海內永嘉翁
시율은 청신(清新)했는데 늙을수록 공교로웠지.	詩律清新老益工

20) 두보의 <戲爲六絕句>에 대해서는 장준영의 <杜甫 戲爲六絕句 詩論 小考>(《중국학연구》 29권, 중국학연구회, 2004.) 참조.

21) 두보는 유신과 관련해 자신의 작품에서 “유신의 평생은 가장 쓸쓸해도, 만년의 시부는 강관을 뒤흔드네.[庾信生平最蕭瑟, 暮年詩賦動江關.]”(《詠懷古跡五首》), “유신의 객지 슬픔은 비록 오래지만[庾信哀雖久]”(《上兜率寺》), “황량한 숲에는 유신의 집이 있을 테니, 주인이 머무르면 나도 의지하리다.[荒林庾信宅, 爲仗主人留.]”(《送王十六判官》), “청신함이 개부 유신 같네.[清新庾開府]”(《春日憶李白》) 등과 같이 언급했다. 장준영의 앞 논문, p.28 참조.

왕개미에게 나무가 가볍게 흔들렸으나 縱被蚍蜉輕撼樹
고인의 풍모 슬회한데는 꺼림 없었다오. 不妨追述古人風

정홍명의 첫 번째 작품이다. 1구의 ‘永嘉翁’은 권필(權鞞)을 가리킨다. 2구에 서는 ‘詩律清新老益工’이라고 권필을 칭송했는데, ‘老益工’의 표현은 위에 보이는 두보의 1구 ‘老更成’과 동일한 표현이며 ‘清新’은 두보가 유신의 작품에 대해 ‘清新庚開府’(<春日憶李白>)라고 한 구절과 연관된다. 두보가 첫 번째 수에서 유신 한 사람만을 언급한 것처럼, 정홍명 역시 권필 한 사람만을 언급하면서 권필을 유신에 견준 것인데, ‘老益工’과 ‘清新’의 표현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후 3,4구의 표현 방식 또한 두 작품의 흐름이 유사하다.

정홍명은 교유했던 권필을 <記夢>·<又和懷石洲作云云>(권1), <二十八宿歌, 效山谷, 戲呈素翁.>(권2), <戲效老杜六絕句>·<月波亭, 次石洲韻.>(권8)에서 소환한 바 있다. 권필은 두보 시에 정통했다고 평가받는 시인이다.²²⁾ 정홍명은 권필을 소환하면서 그의 시작품에 대한 평가를 지속했는데, 이는 두보 시에 대한 정홍명의 이해와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두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에서 당(唐)나라 초기 사걸(四傑)로 불리는 왕발(王勃)·양형(楊炯)·노조린(盧照隣)·낙빈왕(駱賓王)의 시풍을 칭송하면서도, <<시경·국풍(國風)>>과 <<이소>>는 한위(漢魏)의 스승이고, 한위가 노조린 왕발의 스승이라고 언급했다.²³⁾ 이러한 언급은 두보가 생각하는 시의 원류에 대한 접근이다.²⁴⁾ 이후의 작품에서는 후학들에게 시의 전법에 대한 학습을 독려

22) 한해혈은 앞 논문에서 권필의 두보 시 수용 양상에 대해 동일 어구의 차용과 압축과 변형, 시어의 확장 측면에서 논한 바 있다.

23) 두보, <戲爲六絕句> 두 번째 수 “王楊盧駱當時體, 輕薄爲文哂未休. 爾曹身與名俱滅, 不廢江河萬古流.” 세 번째 수 “縱使盧王操翰墨, 劣於漢魏近風騷. 龍文虎脊皆君馭, 歷塊過都見爾曹.”

24) 청(淸)나라 옹방강(翁方綱)도 두보의 이 작품에 대해 “여섯 수는 모두 사고(師古)를 주체로 삼고 있다. 노조린, 왕발을 가까운 시대와 비교하면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스승이며 한위(漢魏)의 문장은 노조린과 왕발의 스승이며, <<시경·국풍)>>과 <<이소)>>는 한위의 스승이다. 이것이 바로 ‘전익다사(轉益多師)’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며 단계별로 쌓이며 거슬러 올라가 스승을 삼고 또 반복해서 스승을 삼아 곧장 가장 높은 곳에 이르러 반드시 풍

했다. 물론 이는 두보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다. 반면 정홍명은 두 번째 수에서는 정사룡(鄭士龍)과 고경명(高敬命),²⁵⁾ 세 번째 수에서는 최경창(崔慶昌)과 백광훈(白光勳),²⁶⁾ 네 번째 수에서는 이달(李達)과 허난설현(許蘭雪軒),²⁷⁾ 다섯 번째 수에서는 차천로(車天輅)와 이춘영(李春英)을²⁸⁾ 대상으로 그들의 시풍에 대한 칭송을 이어갔다.

전현에 미치지 못해도 다시 의심 말지니	未及前賢更勿疑
저마다 서로 베끼니 누가 앞선다 하라.	遞相祖述復先誰
거짓된 체제를 가려 없애야 《시경》에 가까워지니	別裁僞體親風雅
더욱 많은 스승을 너는 배워야 하네.	轉益多師是汝師

두보의 여섯 번째 수이다. 1구의 ‘前賢’은 유신과 사결이며, 2구는 시배(時輩)들이 전현들의 학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도 뛰어남이 없다는 평가이다. 3구에서는 《시경》을 중심에 두고 시에 접근해야 위체(僞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고 4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결과 유신을 스승삼아야 진체(眞體)의 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결국 시의 원류로 《시경》을 설정하고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단한 스승을 스승삼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적막해진 선배들 끝내 따라잡기도 어려운데	寥寥前輩竟難追
쪼아대고 울어대니 과연 누가 기묘한가.	啄啄爭鳴果孰奇
천추에 길이 남아 옳고 그름을 논하리니	留與千秋論得失

아(風雅)에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장준영의 앞 논문, p.24 재인용.

25) <戲效老杜六絕句> 두 번째 수 “湖翁蒼老復誰先, 艷麗相誇數百篇. 絕調未應凌鮑謝, 大名千古要終傳.”

26) <戲效老杜六絕句> 세 번째 수 “崔白風騷踏盛唐, 都將錦繡作心腸. 郊寒島瘦誰分別, 撼玉春金自擅場.”

27) <戲效老杜六絕句> 네 번째 수 “孫谷詞華蘭雪才, 鵝雛翡翠是仙胎. 試看多少瓊瑤句, 一一流傳白玉臺.”

28) <戲效老杜六絕句> 다섯 번째 수 “三峽詞源見五山, 應同體素築騷壇. 雕龍繡虎人爭覩, 百賦千詩滿世間.”

가련하다, 이는 한 치 마음만이 안다오.

可憐惟是寸心知

정홍명의 여섯 번째 수이다. 두보와 정홍명의 1,2구에 보이는 ‘未及前賢’과 ‘前輩竟難追’, ‘遞相祖述’과 ‘啄啄爭鳴’은 동일한 맥락의 표현이다. 하지만, 두보의 ‘전현’은 유신과 사결이고 정홍명의 ‘전배’는 자신의 작품에서 언급한 조선 초기의 시인이다.

권필을 유신에 비견하면서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전체 작품의 포문을 열었고 이후 시인들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시 창작을 위해 이들을 스승으로 삼아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부분은 두 사람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분모이다. 그러나 두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에서 전대 시인에 대해 칭송했고 세 번째 수에서는 시의 원류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이후의 작품에서는 당대 시인 혹은 후학들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반면 정홍명은 다섯 번째 수까지 당대 시인들에 대해 개별적인 비평을 했고 여섯 번째 수에서 그들에 대한 득실(得失)을 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그 의미 속에는 스승으로 삼아야 하며, 그래야 제대로 된 시를 창작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는 녹아있다. 결국 두보나 정홍명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망은 동일하지만, 접근 방식이 상이할 따름이다. 정홍명이 두보의 작품을 본받아 지으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다.

형체 잊었으니 다시 나이 잊음 어찌 꺼리랴

忘形何憚更忘年

이백의 재주와 명성 두보가 아끼었다네.

白也才名杜子憐

한 방의 그윽한 난초에 취미 같았고

一室幽蘭同臭味

궁궐의 아름다운 기운이 사방 감쌌었지.

九門佳氣拂周旋

고운 얼굴 쇠해져 오래 병석에 누운 채

容華鼎鼎長淹病

새벽 북소리 울려도 평온히 잠을 자네.

曙鼓寥寥尚穩眠

기억난다, 어젯밤 호해 꿈꾸었는데

記取昨宵湖海夢

즐겁게 물세를 따라 유유히 갔었지.

好隨鷗鷺逝悠然

권5 <再用前韻酬谿谷>의 네 번째 수로, 계곡(谿谷) 장유(張維)와의 우호를 읊은 작품이다. 2구의 ‘白也才名杜子憐’은 두보가 이백을 좋아했듯이, 자신 또한 장유를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두보의 <春日憶李白>의 첫머리에 보이는 “이백이여 그대 시 상대가 없으니, 뛰어난 시상 남들과 다르네.[白也詩無敵, 飄然思不群.]”라는 구절을 의식한 상태에서의 언급이다.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칭송하는 내용은 두 작품이 모두 동일하다.

4구의 ‘九門佳氣拂周旋’ 역시 두보의 시구를 활용한 것이다. 두보의 <寄岳州賈司馬六丈巴州嚴八使君兩閣老>에서 “이때 은혜 받아 임금 수레 이끌었는데, 아름다운 기운이 사방을 두루 감쌌네.[此時霑奉引, 佳氣拂周旋.]”라고 했다. 이 당시 두보가 좌습유가 되어 임금을 호종하여 서울로 돌아왔기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정홍명은 이 구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신이 아닌 장유의 상황으로 변용했다. 두보를 직접 언급하면서 두보 작품의 구절을 활용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변주를 피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았다.

두보 시어의 활용을 통해 동일한 의경을 창출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내용의 변주를 피한 경우도 보인다. 권4 <敬次北渚相公辱贈韻> 6구에서 “집 천 칸으로 선비를 보호하네.[庇土廈千間]”라고 했는데,²⁹⁾ 이 구절은 두보의 <茅屋爲秋風所破歌>에 보이는 “어이하면 천 칸 만 칸 너른 집 구해, 천하의 궁핍한 선비 널리 감싸 모두 기쁜 얼굴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산처럼 편안할까.[安得廣廈千萬間, 大庇天下寒士俱歡顏, 風雨不動安如山.]”라는 구절을 압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홍명은 북저(北渚) 김류(金瑬)의 역량을 칭송했고 두보는 바람에 무너진 자신의 집을 노래하여, 내용은 상이하다. 정홍명은 김류를 칭송하기 위해 전혀 다른 질감의 두보 작품을 압축하면서 적절히 자기화했다.

권5 <與諸彥集張孝先家飲權. 翌日, 霽湖公見以五律投示座中, 用其韻酬報.> 중 자점(子漸) 양경우(梁慶遇)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 “늙은 준마가 굳이 먼

29) <敬次北渚相公辱贈韻> “國須回泰運, 公合濟時艱. 寵辱元如寄, 身名貴兩完. 佐治書一部, 庇土廈千間. 白首儒冠在, 長懷貢禹彈.”

길을 다닐 게 있다.[老驥何煩取遠途]”라고 한 바 있다. 두보의 <江漢>이란 작품은 비록 떠돌이로 늙은 서생이지만, 마음만은 장대하니 아직은 쓸 만하다는 의기를 드러낸 것으로, 마지막 구절에서 “예로부터 늙은 말을 보존하는 것은, 굳이 먼 길을 다니기 위함이 아니라네.[古來存老馬, 不必取長途.]”라고 한 바 있다. 정홍명이 두보 작품을 의식한 상태에서 쓴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두보는 자신의 의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데 반해, 정홍명은 양정우를 칭송하기 위해 전혀 다른 맥락인 두보 작품의 시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지난겨울 선달에 눈이 없더니	去冬臘無白
봄철에 한 달 넘도록 가물구나.	方春彌月旱
새싹은 굵은 채 돌아나지 않고	萌芽句未抽
언 보리는 마르고 또 마르네.	凍麥枯亦嘆
땅바닥은 점차 짝 짝 갈라지고	土脈漸看坼
샘의 근원은 끊어진 지 오래.	泉源久告斷

…중략(中略)…

식구들이 날마다 배고픔을 호소하니	十口日呼飢
가슴에는 언제나 근심을 품고 있네.	寸腸長抱懣
노두(老杜)는 바로 나의 스승이며	老杜是吾師
궁벽한 맹교(孟郊)와 애써 짝을 한다오.	窮郊作強伴
예나 이제나 모두 이런 일이 있었노니	今古儘同塗
목숨 부지함도 이미 분수에 넘치네.	命存分已滿

권1에 실린 5언 24구의 <苦旱>이란 작품이다. 가뭄에 시달리는 현실을 읊조리면서, 비록 고단한 삶이지만 자신의 스승은 두보라고 했고 교한도수(郊寒鳥瘦)로 정평이 나 있는 맹교(孟郊)에 자신을 견주었다. 예로부터 이러한 가뭄이 있었다고 하면서 두보와 맹교를 가져와 스스로를 위안했다.

개인적인 안위의 측면에서 접근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두보의 5언 20구 <夏日歎>과 바로 이어지는 5언 24구 <夏夜歎>과도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두보의 이 두 작품 역시 가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두보는 두 작품의

전반부에서 가뭄의 실상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어 허북(河北)의 반란군을 평정하지 못한 상황에 집중했다. 정홍명이 두보의 작품을 의식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변주를 꾀한 작품이라 하겠다.³⁰⁾

정홍명의 <苦旱>이란 작품 뒤에 바로 5언 24구의 <喜雨>라는 작품이 있는데 가뭄 속에 단비가 내린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³¹⁾ 두보에게도 5언 16구의 <喜雨>라는 작품이 있다.³²⁾ 두보의 작품은 가뭄에 단비가 내린 기쁨을 노래하면서도 전쟁으로 인한 피폐한 삶으로 갈무리했다. 가뭄과 단비로 작품을 엮으면서 두보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당대 사회상을 담아내는데 집중한 반면 두보의 작품을 의식하면서 쓴 정홍명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정감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두보 시의 의경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정홍명은 두보 시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변주를 적극 시도했다. 두보의 시구나 의경, 전체 작품을 의식한 상태에서 작품을 지으면서도 두보 작품과는 결을 달리했고 의미는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을 상이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자기화를 시도한 것이다. 두보 시의 수용 양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시어나 시구 및 의경의 수용 방면에 집중되어 있을 뿐, 정홍명처럼 두보와는 다른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낸 경우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보 시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자기화의 시도는 정홍명만의 특징적 일면이라 하겠다.

30) 이외 두보의 <雷>·<火>·<熱三首>라는 작품도 가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들 작품 역시 허북의 반란군에 집중되어 있다.

31) <喜雨> “苦旱近太甚，齊民望穹昊。天心憫赤子，霑澤應虔禱。雲色暮慘慘，雨氣朝浩浩。亂滴聞屋溜，狂飈見行潦。青青隴上麥，肅肅園中草。豈惟物華滋，令我顏色好。貧家聊偃息，聽宇靜澗滯。修營課僕隸，尋歷有隣老。怡然相勞苦，促膝罄懷抱。農談不知倦，村釀豈辭倒。衣食苟自足，餘外何足道。只願時運平，小大各相保。”

32) 杜甫，<喜雨> “春旱天地昏，日色赤如血。農事都已休，兵戎況騷屑。巴人困軍須，慟哭厚土熱。滄江夜來雨，眞宰罪一雪。穀根小蘇息，沴氣終不滅。何由見寧歲，解我憂思結。崢嶸羣山雲，交會未斷絕。安得鞭雷公，滂沱洗吳越。”

4. 나가는 말

정홍명의 삶은 당고(黨綱)로 지목되어 순탄치 못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인식이나 불우함이 그의 시문에 그대로 녹아 있다. 정홍명의 문학작품에 대한 접근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그간의 선행 연구는 장자적 사유의 작품화와 그 속에 담긴 함의 및 그러한 작품을 양상하게 된 삶의 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제가들의 평을 통해 보면, 크게 장자와 두보가 정홍명 작품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두 축이 된다. 장자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어느 정도 그 양상을 밝혔지만, 다른 한 축인 두보에 대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홍명의 두보 시 수용 양상에 대해 거칠게나마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정홍명의 두보 시 수용과 변주 양상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시어나 시구 혹은 의경이 유사한 구절을 가져와 조합한 경우도 있었지만, 두보의 작품을 의식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낸 작품들도 산견되었다. 두 경우 모두 두보 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상황이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일정 부분 자기화하는 변주를 꾀했다. 그러니, 두 경우 모두 작품의 출발점에 두보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두보 시의 수용 양상을 논한 선행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시구나 의경의 수용 양상만을 밝혔다. 그러나 정홍명의 경우에는 두보 시의 단순한 수용과 변주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자기화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부분은 두보 시를 수용한 다른 시인들과 변별되는 정홍명만의 특징적 일면이라 하겠다.

두보의 작품을 통합한 상태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편적인 언급을 통해 두보 시의 수용 양상을 나열식으로 살핀 것은 본고와 연구자의 한계임을 거듭 밝힌다. 다만 정홍명의 작품과 의식의 일단을 조금이나마 입체적으로 통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정홍명(鄭弘溟), 《기암집(畸庵集)》, 한국문집총간 87.
- 이관성 역(譯), 《두시경전(杜詩鏡銜)》 권1·2·3·4, 도서출판 문진.
- 구본현, <李安訥의 韓愈·杜甫 詩 학습의 실상과 의미>, 《한문고전연구》 14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 권혁명, <정홍명의 <기옹만필>에 대하여>, 《한성어문학》 35권, 한성어문학회, 2016.
- , <畸庵 鄭弘溟의 漢詩 研究 - 黨錮의 삶과 詩世界 ->, 《인문학연구》 6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 김광년, <畸庵 鄭弘溟의 賦와 散文에 대한 一考察>, 《한문학논집》 43권, 근역한문학회, 2016.
- (UCI: G704-SER000008636.2016.43..008)
- 김근태, <耘谷 元天錫의 杜詩수용 양상에 대한 試論>, 《한문고전연구》 25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 (UCI: G704-002001.2012.25.1.013)
- 김봉남, <茶山 丁若鏞 詩에 나타난 杜甫 詩 수용양상(2)>, 《동방한문학》 80권, 동방한문학회, 2019.
- 김은정, <鄭弘溟의 생애와 시문학 세계>, 《국문학연구》 10권, 국문학회, 2003.
- 김현주, <澤堂의 杜甫 詩 受容樣相>, 《한문학논집》 25권, 근역한문학회, 2007.
- 박수천, <기암 정홍명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9권, 한국한시학회, 2005.
- 박종훈, <星湖僿說에 보이는 원류비평 양상(I)>, 《온지논총》 51권, 온지학회, 2017.
- (UCI: G704-001782.2017..51.007)
- , <星湖僿說에 보이는 원류비평 양상(II)>, 《온지논총》 57권, 온지학회, 2018.
- (UCI: G704-001782.2017..51.007)
- , <鄭弘溟의 《畸庵集》 一覽>, 《인문학연구》 6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엄태식, <畸庵 鄭弘溟 산문 연구>, 《인문학연구》 6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이정화, <退溪 李滉 시에 나타난 杜詩 수용 양상>, 《한국사상과문화》 55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UCI: G704-000697.2010..55.015)

장준영, <杜甫 戲爲六絕句 詩論 小考>, 《중국학연구》 29권, 중국학연구회, 2004.

(G704-000529.2004..29.021)

정재철, <조선중기 도학가의 두보 시 수용 양상 -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6권, 한국한문학회, 2014.

(UCI: G704-000273.2014..56.014)

정지용, <畸庵 鄭弘溟의 漢詩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5.

최경환, <鄭弘溟의 <田家四時詞>詩와 連作詩의 構成原理>, 《牛岩斯黎》 권8,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한혜혈, <石洲 權輶의 杜詩 受容 樣相>, 《한문교육연구》 4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사고전서전자판(四庫全書電子版)

| Abstract |

A Study on Acceptance and Variation of Dubo's Prototype by Jung Hong-myeong

Park, Chong-hoon
Chosun Univ. Prof.

Jung Hong-myeong is a writer representing Honam(湖南). He had difficulties in his official life because of his father, Jeong-cheol(鄭澈). So he returned to his hometown, lived and concentrated on his studies. He captured his underprivileged life in his works, and solved it through the thought of the Zhuagzi(莊子)'s reasons or the active use of Dubo(杜甫)'s prototypes.

So far, no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e acceptance pattern of Dubo. However, looking at the many references related to Jung Hong-myeong, it is easy to see that Dubo is one way to understand Jung Hong-myeong's work. Therefore, in this paper, we briefly reviewed the acceptance patterns of Dubo's prototypes.

First, we looked at the partial acceptance of Dubo's prototype. The acceptance and variation patterns were examined through similar poems, ceremonies, or works reflecting the conscripted scriptures. Jung Hong-myeong not only accepted Dubo's prototype, but also opened his own poetry world by changing the direction of Dubo's prototype.

Next, the overall acceptance and variation of Dubo's prototypes were examined. Jung Hong-myeong actively accepted Dubo's prototypes by

composing works with the same or similar titles to Dubo's prototypes. At the same time, he clearly captured his own voice that was different from Dubo.

In this thesis, partial or total acceptance and variation have been briefly examined, bu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is a dubo at the starting point of understanding Jung Hong-myeong's work with this tendency.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a three-dimensional approach to Jung Hong-myeong's work.

Key words : Jung Hong-myeong(鄭弘溟), Giamjib(畸庵集), Dubo(杜甫), Acceptance and Variation, Huihyonoduyugjeolgu(戲效老杜六絕句), Zhuagzi(莊子).